표지사진 : 필리핀 선재수련에 참가한 학생들을 울리고 웃긴 순진무구한 가가후만 아이들의 모습

JTS 통권 52호 2005년 3·4월

펴낸날 : 2005. 3. 7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류희원, 최정연, 이미경, 김희수, 윤미옥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특집 | 쓰나미 긴급구호 현장을 가다

4 긴급구호 경과보고
6 쓰나미 피해지역 '따랑구르' 마을 구호활동
11 활동소감문

인도 둥게스와리 소식

14 인도의 희망으로 자라는 수자타 아이들
17 엄마가 인도를 가랜다. 너무 싫었다!!!

지금 북한에선

21 2005년 신년공동사설

아프가니스탄 소식

23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며

필리핀소식

25 제1차 필리핀 선재수련을 다녀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29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이웃

33 나도 어머니 마음으로
34 동전의 가치

활동보고 및 안내

36 인도 지원 및 현지활동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현지활동
국내소식
39 물품후원
40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성금집계현황
42 라진 · 선봉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44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45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및 거리모금 현황

"마음을 나누어주고 왔습니다"

–쓰나미 피해 이웃들과 함께한 JTS–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8시(한국시각 오전 10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리히터 규모 8.9의 강진이 발생해 인도네시아와 인근 동 · 서남아시아에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꿈인지 생시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믿겨지지 않는 숫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2월 8일 현재,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피해는 29만 5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파도가 두 번 들어왔다 나가니 세상이 바뀐' 일이 생긴 다음날, JTS는 전국적으로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우선 긴급하게 피해국가 대사관을 통해 성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29일, 피해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1월 8일부터 일주일간 현지피해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긴박하게 펼쳐진 약 20일간의 쓰나미 피해 긴급구호활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긴급구호 경과보고

1. 긴급 성금지원

12월 27,28일, 피해지역 한국주재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통해 각각 2천달러의 성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토의 절반이상 큰 해일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는 아리야라트네 박사님이 운영하는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본부에 5천달러를 지원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담요,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남인도 타밀다두 긴급구조단 현지구호활동

1) 12월 29일, 피해 지역 첸나이로 총 4명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2) 12월 31일, 남인도 타밀나두주 주도인 첸나이에 도착하여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3) 1월 7일, 구호활동지역을 타밀나두주 까달로르 지역 라사베따이 마을에서 따랑구르 마을로 변경하였다.

4) 1월 8일, 1차 선발팀(4명)과 2차팀(43명)이 결합(총 47명)하여 구호활동을 시작하였다.

5) 1월 14일, 일주일간의 긴급구호(의료, 쓰레기청소, 집수리, 무료급식)활동을 마쳤다.

3. 스리랑카 구호물품 지원

작년 12월 29일 한국주재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지원요청품목을 보내오고, 1월 11일 긴급하게 필요한 세부물품으로 수정된 목록을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본부로부터 전해 받았다. JTS는 주방용품과 학용품, 천막천 등 2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을 1월 21일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1월 29일 부산항에서 출항하였다. (주방용품은 1가구 5인 기준으로 1,000가구분, 학용품은 1만명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주방용품 106박스, 문구류 318박스, 천막 66롤, 주방용품을 담을 수 있는 마대 5뭉치, 문구류를 담을 수 있는 비닐봉투 2박스를 포함하여 총 431박스와 천막 66롤을 컨테이너에 실었다. 이 구호물품은 2월 10일 스리랑카 콜롬보 항에 도착하였다.)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이 2월 23~26일까지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지원한 물품의 분배를 확인하고, 피해지역을 답사한 뒤 부서진 유치원 15개의 재건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4. 전국 성금모금운동

1월 29일부터 인터넷에 공고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돕기'에 성금이 꾸준히 접수되었다. 2월 16일까지 성금총액은 82,256,429원과 $2549.79이다.

5. 거리모금활동

전국적으로 거리모금활동도 전개되었다. 1월 11일 명동모금활동을 포함해 거리모금총액은 4,103,530원에 달한다.(광주 216,110원, 대구 225,000원, 대전 103,540원, 동래 244,550원, 마산 82,720원, 서울 2,199,680원, 울산 230,200원, 청주 374,610원, 해운대 427,120원)

연예인들도 작은 정성을 모아

'한강수타령'의 고두심, 박한별, 이윤지, 봉태규님과 '꽃보다 아름다워' 노희경 작가, '은실이'의 성준기 PD, 배종옥님이 1월 11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한국JTS 회원 40여명과 함께 쓰나미 지진해일 돕기 거리모금에 참여했다.

고두심님은 '이번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모금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고, 많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진해일 돕기에 동참하여 200만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하였다.

쓰나미 피해지역 '따랑구르' 마을 구호활동

1. 따랑구르(VILLAGE THAZANGUDA, DISTRICT CUDDALORE, STATE TAMILNADU, INDIA) 마을 소개

까달로르는 타밀나드 주도인 첸나이에서 남쪽으로 175㎞, 폰디체리에서는 남쪽으로 23㎞에 위치하고 있고, JTS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따랑구르 마을은 까달로르시에서 북쪽으로 5㎞ 떨어진 해안마을이다.

따랑구르 마을은 335세대, 총인구 1987명이 살고 있으며,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63명이 사망하였고, 75명이 부상을 당했다.

2. 인력 파견

1) 12월 29일, 선발대 파견 : 인도JTS 현지에서 장영주(인도JTS 사무국장), 서동우(대학생), 인도JTS 인도인 활동가 2인을 파견하여 사전 조사 활동을 하였다.

2) 2005년 1월 5일, 이덕아(아프간JTS 소장) 외에 인도워크캠프 참가자 중, 구호활동을 자청한 12명의 한국대학생들과 지바카병원 인도인 활동가 4명, 인도JTS 노동학교 교사와 학생 등 27명을 현장으로 2차 파견하였다.
3) 1월 8일, 1차팀(4명)과 2차팀(43명)이 결합하여 총 47명이 현지구호활동을 펼쳤다.

3. 현지 구호활동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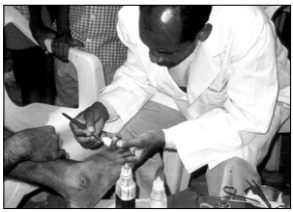
1월 7일 – 구호활동 지역을 타밀나두주(Tamilnadu State) 라사베따이 마을로 정하고 임시숙소 짓는 작업을 예정했으나 이 지역이 공장영토로 임시숙소를 지을 수 없게 되어 '따랑구르' 마을로 변경하였다.
–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밤에는 4㎞ 떨어진 결혼회관에 가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마을로 돌아온다고 했다. 주민들은 폐허가 된 마을에서 넋을 잃고 손을 놓고 있으며 마을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다.

1월 8일 – 1,2차 팀이 결합하여 모두 47명이 된 우리는 5개 팀으로 나누어 따랑구르 마을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가기로 했다.
– 정부에서 지원한 포크레인, 불도저를 가지고 군인들 50여명과 함께 마을청소를 시작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팔짱만 끼고 서있던 주민들도 서서히 집과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 밖에서 부서진 집만 보는 것과 실제 마을로 들어와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온통 부서진 물건들로만 가득해 보이는 그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

해일로 가옥이 파괴되고 생계수단인 고기잡이배와 그물을 모두 잃었다.

의 집을 새로 짓기 위해 온전한 벽돌과 한 개의 나무라도 건져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1월 9일 – 군인들이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밀고, 우리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 지을 때 사용할만한 재료들을 고르는 일을 했다. 또 심하게 부서지지 않은 집들은 내부청소를 했다. 집들이 모래사장에 있어서 140㎝ 이상 침수되어 집 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태울 것들은 태우는 일을 했다. 날씨는 최고 30℃, 최저 20℃인데 작업할만한 날씨다.



1월 10일 –오늘은 해일이 일어난 지 만 보름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많은 집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정사진 앞에 꽃을 놓고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의료팀은 오늘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마을에 있는 힌두 사원 앞에서 77명이 치료를 받았다. 특히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발을 그냥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다시 곪아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 부서진 집은 거의 다 허물었고 집 청소도 거의 끝나간다. 고치면 살 수 있는 집은 고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해안 쪽에는 집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도 또 다른 지진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곳에 살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집수리는 하지 않고 집 주변을 청소했다.

– 이곳에서 3일 정도 지나면서 우리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고 편하게 대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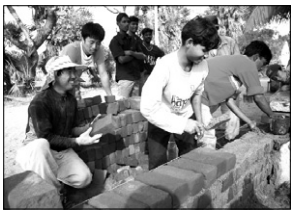
1월 11일 –오늘 점심을 우리 JTS에서 마을사람 1,000여명에게 뿌리와 사부지를 만들

어 주었다. 그들은 매일 달을 배급받아 먹었었는데 뿌리와 사부지를 주니 아주 좋아했다.('달' 은 팥 종류의 곡식을 끓여 만든 음식이고, '뿌리' 는 넙적한 밀가루 전을 기름에 튀긴 것이고, '사부지' 는 각종 야채와 향신료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뿌리를 작게 잘라 사부지를 싸서 먹는다.)

– 의료진은 인기가 많다. 설사약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외상환자가 많아서 약을 더 구입해 와 치료해 주고 있다. 오늘은 65명을 진료했다.

– 개인 집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공동 공간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배급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다른 곳보다 많다. 오늘은 마을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청소도 하고 놀기도 했다.

1월 12일 –오늘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마을회관은 한국 대학생들이 담당하고 학교교문, 교실, 도서관은 노동학교(YSS) 학생들이 작업을 했다. 노동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일감을 만나 실력을 한껏 발휘한 자신감 넘치는 하루였다. 또한 처음 보는 바다 덕분에 더욱 더 즐겁게 일하고 있다.



– 의료팀은 까미스와르님이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는 덕분에 인기가 좋다. 오늘은 7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의 친척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옷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주는 아주머니도 있고, 자기 집으로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라고 초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1월 13일 –YSS 학생들과 워크캠프 참가 학생들은 마을에서 요구한 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마을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조개껍데기를 선물로 주었다.

– 의료팀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7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 오늘 점심식사는 지난번 점심 급식 준비에 대한 답례로 정부 측에서 우리들 몫까지 준비를 하여 학교 안 급식소에서 식사를 했다.

– 해안가에서 배를 손질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다시 배를 타고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선뜻 'Yes'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직은 바다가 두렵다고 하지만, 배를 손질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언젠가는 두려움을 극복해낼 의지가 엿보인다.

1월 14일 –일주일간의 긴급구호(의료, 쓰레기청소, 집수리, 밥해주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영구주택을 짓는 것인데, 마을사람들과 정부, 땅주인이 풀어갈 일로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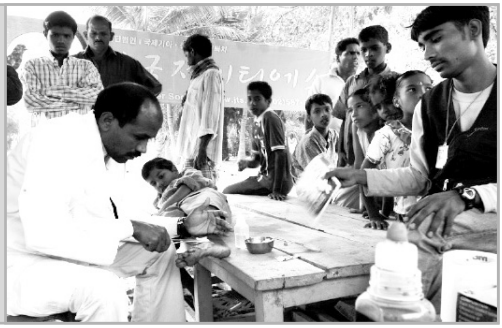
– 이제 마을은 조금씩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다. 학교도 다시 열었고, 해안가의 배들도 수리하며 마을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우리의 구호활동은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갖게 해 준 활동이었다. YSS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 씀으로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쁨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인도워크캠프 참가대학생들도 마음으로 도와주는 일에 함께할 수 있었음에 기뻐하였다.

"우리는 구호활동을 하면서 이재민들이
집과 배를 잃어버려 당장 먹고 자고
할 곳이 없어진 눈에 보이는 상실 이외에도
가족을 잃은 슬픔, 쓰나미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재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가능한 빨리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웃어주고 즐겁게,
열심히 마을 청소를 하였습니다."

–장영주(인도JTS 사무국장)님의 활동후기 중에서

그들에게 잘 쓰인 나

까미스와르 |
인도JTS 지바카병원 인도인 활동가



한 아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고 있는 까미스와르님

2005년 1월 8일, 나는 타밀나두에 도착하여 14일까지 있었다. 그 지역은 따랑구르 마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이 곳은 2천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지진 해일로 63명이 사망했다고 하였다.

그 날, 우리는 아무런 도구도 없지만 그대로 마을사람들과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벽돌을 줍고 나르는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집 안팎의 쓰레기들을 치웠다. 다음날, 마을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연장인 벼 베는 도구와 코코넛, 대나무 막대기 등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는데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었다.

10일부터는 마을 힌두 사원 앞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여, 그날 77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대부분이 상처를 입은 환자였다. 그 이후로 1월 1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마을 사람들을 진료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환자의 상태는 거의 비슷하였다. 그날 나는 65명의 환자를 치료하였고, 다음날은 74명의 환자가 왔다. 총 32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매일 평균 81명의 환자들이 방문한 것이다.

어려움이 있었다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같은 인도에서도 다른 언어(타밀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떻게 안 좋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보다는 드레싱 등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어 간단한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의 나의 느낌은 '매우 좋았다' 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의료봉사활동이 잘 진행되었고, 그곳에선 의료서비스를 매우 필요로 하였다.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 곳에 갔고, 그 곳에서 잘 쓰이고 있었다.

다른 지역, 다른 곳, 다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그들을 도왔다.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JTS 봉사자들과 나도 함께 일하게 된 것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매우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까미스와르님은 네 아이의 아버지로, 인도JTS 수자타아카데미 선생님과 양호교사, 그리고 지바카병원 의사로 둥게스와리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돕는 기쁨

마노즈 |
인도JTS 사무국 인도인 활동가

마을 사람들의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있는 마노즈님(오른쪽)

사전조사팀 4명은 2004년 12월 29일, 인도 둥게스와리를 출발하여 12월 31일 밤, 첸나이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첸나이의 정부 직원을 만나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물어보니 나가빠띠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곳의 피해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도울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가빠띠남에 도착하여 보니 2005년 1월 1일 밤 10시가 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지역 한 의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보기를 권유하여 우리는 오토릭샤를 이용하여 세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아까라뻬따이, 깐찬카폼, 벨라가니였는데, 가장 심각한 마을은 아까라뻬따이였습니다.

3천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죽은 사람만 해도 500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깐찬카폼은 3, 40명이 죽었고, 벨라가니는 50여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상태는 모든 집들이 부셔져 있고, 어느 집도 제대로 된 집이 없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생계를 꾸려나갈 배와 그물 같은 것들이 다 망가지고 매우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벨라가니는 바닷가 쪽만 피해가 있었고, 매우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정부는 세끼 식사를, NGO에서는 옷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인도, 외국 NGO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NGO에서 들어와 긴급구호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인도 사르보다야의 순다르샨님의 소개로 까달로르 지역 따랑구르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따랑구르는 남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정의 집기류, 도구들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매우 안 좋은 냄새가 나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로 들어가 먼저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학교 건물들을 보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로 한 일은 시장 보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힌디를 할 줄 모르고 나는 타밀어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긴급구호활동 중에 노동학교 학생들이 점심을 만들어 마을사람들 모두와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학생들도 즐거워하고, 저 역시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번에 JTS와 함께 한 일, 특히나 노동학교 학생들과 한국인 대학생들과 함께 긴급구호를 한 것이 저에게는 참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도움을 준 이 곳은 내가 사는 곳에 비하면 무척이나 부유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점은 우리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긴급구호를 무사히 마치고, 그들의 얼굴에 실낱같은 미소를 머금게 해 준 분은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멀리서 성원해 주신 한국의 수많은 후원자 분들입니다. 이곳 따랑구르 마을 분들을 대신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노즈님은 수자타아카데미 첫 졸업생으로 4년째 사무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 보는 일을 믿음직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6년을 돌아보며

인도의 희망으로 자라는 수자타 아이들

이화승 | 인도JTS 대표

제가 인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것은 법륜스님과 함께 한 1991년 1월이었습니다. 그 때 법륜스님께서 인도에서 구호사업을 해야 겠다 하시기에 "스님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제가 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이티에스에서 일하게 되었고, 99년부터 둥게스와리에서 살게 되었을 때 저는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인도인 활동가들과 함께

둥게스와리에 살기 시작한 첫 해, 99년에는 오리샤에서 수퍼사이클론이 생겨서 우리 한국인 봉사자들과 수자타아카데미 중고등학교 학생, 가야의 불교청년회 회원 등 50여명이 함께 긴급재난 구호팀을 구성해서 구호활동을 하기도 하였지요.

2000년부터는 인도의 제이티에스와 정토회 법인작업을 하였습니다. 영어도 짧고 힌디는 더더욱 짧은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용감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영어를 아주 잘하는 봉사자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힘든 일을 힘든 줄 모르고 부딪히면서 좌충우돌 그런 대로 진행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인도의 문화도 잘 모르고 성질대로 되지는 않고 해서 거리에서, 기차에서, 정부 사무실에서 만나는 인도인들과 목소리 높여 다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요. 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는 것보다 웃으면서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제게도 좋고 일도 훨씬 더 잘 풀

린 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맡은 일은 주로 외부에서 진행되는 일 처리를 중심이었고 둥게스와리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던 탓에 내부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내부 형편을 좀 더 잘 알게 된 것은 2001년 9월부터 지바카 병원 책임을 맡으면서였습니다. 인도인들은 대학을 나와도 사무적인 업무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어야 가능하고 가르쳐주는 일도 그대로 잘 하면 천만 다행이었지요. 진찰권하나 정리하는 것, 일련번호에 맞추어 환자들 관리하는 것 등을 가르쳐주고 한 시간만 자리를 비워두면, 어느새 번호가 엉망이고 이미 환자는 가버렸는데 다시 바꾸어서 해 볼 수도 없고... 성질은 나지만 성질부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어서 다시 알려주려고 담당자를 찾아 제가 "번호가 틀렸네!" 하자마자 혹시나 야단맞을까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거치고 나니 우리가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만 운영하다가 지바카 병원이 생기고 마을개발부서가 생기고 청소년 노동학교, 수자타 기술학교를 운영하는 등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적인 변화에 맞추어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불가촉천민들을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에게 주눅 들지 않고 함께 나란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력으로 키울까' 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자타아카데미 리더(중고등학생)와 인도인 선생님, 청소년노동학교, 기술학교, 마을개발 교사들 등 팀을 나누어서 숙박 수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토회의 설립취지, 활동상황, 인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모금을 하고 후원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생활해주기를 바라는지…

그 효과는 기대이상이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수자타 아이들 스스로가 '우리도 보시하고 싶으니 보시함을 만들어 달라' 고 해서 보시함을 만들고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만 1루피, 50파이샤라도 보시를 하였습니다. '어디에 쓸까' 를 묻자 룡천역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금액

은 비록 적었지만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지요. 학생들의 늘어나는 숫자를 교실 증축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술학교 교실의 일부를 점령하고도 모자라 기술학교에 3층을 증축하면서 수자타아카데미 교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벽에 걸어둘 시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필요를 느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한국 선생님께 사달라고 하면 금방 사주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힘을 모아 사서 걸어보자' 하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 결과 전교생이 모두 1루피씩 내고 교사들이 5루피씩을 내서 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1루피는 너무 적으니까 2루피를 내면 안 되겠는지 물어 와서 쁘리양카 교장선생님이 너무나 예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고 하면서 또 다시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습니다.

10여년전 전정각산 언덕에서 새집 같은 머리를 하고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변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저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돕겠다는 마음을 낼 줄 알고,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을 세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유난히 학교 파트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친구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눈물 없이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잊지 못해 다시 한번 찾아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잘 이해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도의 희망으로 자리 잡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이티에스의 후원자님들이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인도JTS 전경

엄마가 인도를 가란다.
너무 싫었다!!!

지금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일까? 외모는 서구인의 체격과 비슷해 어른 같고, 입시경쟁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자기주장이 확실하여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인터넷 · 게임 · 휴대폰 · 컴퓨터가 가장 절친한 친구이며, 대중매체와 성인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 어쩌면 우리 사회의 흐름과 가치관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표현하는 청소년 15명이 지난 1월, 인도의 둥게스와리를 중심으로 워크캠프를 다녀왔다. 솔직하고 진지한 이들의 소감을 몇 편 옮겨본다.

오정민(대화중학교 3학년)

첫날 스님 말씀을 듣고 마음 자세를 싹 바꾸게 되었다. 스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인도에서 봉사를 하면 인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인도에 봉사활동을 하면 인도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냥 2주 동안 사서 고생한다 치고 봉사활동 왔는데, 그렇게 하기엔 느낀 점이 너무나 많다.

반성을 많이 한 것 같다. 내가 사는 세상과 인도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른 줄 미처 몰랐었다. 학교에 결석하려고 일부러 약국에서 봉투를 얻어오는 나와, 몸이 불편한데도 돌산까지 넘어서 학교를 오는 인도 아이들.

처음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게으른 나의 성격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봉사를 했는데, 한국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본색이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도 자꾸 놀라게 된다. 이곳에 오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국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 막상 글로 적으려고 하니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오늘 집을 방문한 친구가

두르가푸르에 있는 우물의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바가히 마을에서 어린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손톱도 깍아주고…

우리는 여기에 와 사랑을 주고 바로 떠나버린다고 하여, 너는 나를 잊어도 좋지만 나는 절대 널 잊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느낀 슬픔, 안타까운 느낌도 아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왠지 몰라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 친구가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기에 인도에 다시 한번 꼭 오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다. 나중에 꼭 인도에 와야할 것 같다.

이서영(삼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엄마가 인도를 가란다. 너무 싫었다. 내 삶이 있고, 내 생활이 있는데 가란다.

15박 16일, 말도 안돼. 정말 싫었다. '여기에 가라는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인도행 비행기를 탔다. 시간이 흐르고 인도에 도착, 낯선 환경과 동시에 우리를 맞이해준 처음 보는 인도스텝들.

바쁘게 하루가 지나간다. 캘커타에서 자유시간을 행복하게 누리며 다음날부터 있을 지옥 같은 봉사활동을 생각하고(괴로워하고) 기차를 타고 보드가야로 가는데 첫날 본 인도와 달리 무지 더럽고 가난해 보였다. 아, 15일이나 잘 견뎌낼까? 짜증 반, 후회 반! 에라 모르겠다. 대충 때워야지 뭐.

내가 온 곳은 수자타아카데미. 생각보다 깔끔해서 좋았고, 학생들도 생각 외로 깔끔해 보였다. 이때까지도 나는 깨우침 없이 외모만 봤다. 다음 날부터 인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가 시작되었고, 나는 우물 주위에 빨래터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무척이나 열심히 하는 나를 느꼈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점점 깨닫는 게 많아졌고, 인도 아이도 한국인과 다를 바 없는

예체능교육시간에 왕관만들기를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하였다.

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축구경기도 하였다.

인간이란 걸 알게 되었다. 문화만 다를 뿐.

작업을 바꿔 벽화 작업도 재미 있었고, 예·체능 교육, 마을 드레싱, 모두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줘서 고마웠고, 작업 마치고 가는 성지 순례도 재미 있었다. 아이들과의 문화행사, 인도 춤이 너무 인상적이고, 정말 맑고 깨끗한,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이 무척 크다는 걸 느꼈다. 마을 방문 때 처음 보는 집에 들어가 몇 시간 있는 것조차 즐거웠다. 처음의 나라면 더러워 했을 텐데...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상상에 빠진다. 나 또한 내 개인적 인도의 모습에 빠져 힘들었다. 잘못된 내 상상을 깨트리고,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 이곳에 억지로라도 보내준 엄마에게 감사하다.

김완철(구암중학교 3학년)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첫 번째 날.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처음 공항에서 나와 길 잃은 큰 개들이 너무 무서웠고, 더러운 바닥은 신발을 신었지만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인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다. 모든 게 다 무섭고 두렵기만 했다. 그렇게 공포의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서 하룻밤을 묵었다. 숙소도 잠도 안 오고 더럽고 무섭기만 했다.

다음날 캘커타에서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쓰레기통도 없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길가에 나 앉은 노숙자들과 개들, 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소변보고 목욕하는 사람들,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 한국의 출근 시간 버스보다 심한 만원버스, 아무것도 나는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의 점심 배식을 맡아 하고 있다.

우리도 손으로 밥 먹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도가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았다.

그렇게 인도에서의 카스트에도 포함되지 않는 불가촉천민이 사는 둥게스와리에서 7일을 보냈다. 풀랫폼 작업 3일, 자그디스푸르 유치원 벽화 작업 3일, 공연 1일을 보내는 동안 인도가 너무 새롭게 다가왔다. 너무 정이 많고 착한 수자타아카데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은 이렇게 착하구나', 인도의 카스트라는 계급제, 인도가 그렇게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드가야에 간 날 '내가 인도 처음 오면서 정말 어리석고 무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우울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내가 바보였나 보다. 그래서 처음 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니까…

지금은 길거리 사람들, 큰 개들,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된다. 인도의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겐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카스트라는 계급제도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마을을 방문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진짜 인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 많고 착한 인도 친구들 때문에 지금 나는 '인도에 내가 남아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리고 다음에 다시 인도에 올 것이다. 꼭 한 번 더 와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감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

추신 :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찾았다. 항상 부모님과 피아노와 한의사라는 직업으로 싸웠는데, 꼭 한의사가 되어 여기 지바카병원으로 올 것이다.

2005년 신년공동사설

북한에서는 2005년도 1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올해의 모든 역량을 농업부문에 집중할 것임을 발표했다. 신년공동사설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농업생산량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북한의 사회상과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북한 2005년 신년공동사설 (농업부문)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다.

• 현 시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본고리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데 있다.

• 우리는 올해에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를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룩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농사에 복종시키며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 농업부문에서는 실천에서 정당성이 확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이모작),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 농사를 잘할 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한다.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야한다.

•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자면 당 조직들이 농업부문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당 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농업부문 일군들 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여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한다.

• 전당, 전군,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분석 및 전망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라고 규정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의 모든 문제의 기본이 농업생산의 증대에 있음을 강조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필요한 노력, 설비, 물자의 최우선적 보장 촉구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콩농사 관련 당방침 관철, 다수확 품종의 대대적 재배, 비료 농약의 원만한 보장, 선진 영농방법 도입 및 기계화 비중 재고

식량수급의 불확실성 증대가 주요배경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지원으로 인한 대북 지원감소 가능성

–UN의 CAP 방식에 의한 지원에 대한 북한당국의 거부의사 및 UN 및 국제기구 평양 상주 인원의 감축 요구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물량 감소가능성

–북핵문제로 인한 불안정요소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금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대규모의 농업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자력 식량 증산이 절실하다고 판단. 중국의 곡물가격 상승,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 감소도 하나의 변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촉진

–7.1 경제 개선 조치 후 시장이 활성화되고 초과 생산물에 대한 분조의 자유처분권이 확대되면서 생산성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생산단위인 분조를 세분화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전 담당제를 확대 실시할 것으로 예상

–특히 다수확품종 재배, 비료와 농약 원만 보장, 선진영농방법 적극 수용, 농사일의 기계화 비중 제고 등을 강조하고, 전당 · 전군 · 전민의 총력지원을 다짐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

출처 :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며

이덕아 | 아프가니스탄JTS 소장

저는 지난 2002년 10월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2년 넘게 긴급지원으로 진행하였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카불근교 사카르다라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코이카 소장님을 모시고 마을회관과 다리공사의 완공식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간단하게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모여 이뤄낸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곳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경험으로 좀 더 자발적이고 힘있게 자신들의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바미얀에는 몇 번에 걸쳐 겨울용품과 문구류를 분배하였습니다. 산골이라서 운송비도 많이 들고 분배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노트 한권이 주는 의미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교육열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머리위에 하얀눈을 이고 있는 설산과 잘 어울리는 사카르다라 마을회관의 모습

그래서 내년부터는 긴급지원성격에서 좀 더 장기적인 입장으로 바미얀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개발하는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돌아온 난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마을에 여성센터와 작은 보건소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농사

사카르다라 마을회관 및 다리 준공식에 참석한 이덕아님(가운데)

를 지을 땅도 가축도 직업도 없이 새롭게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어주십시오.

칸다하르는 아직도 저에게 멀기만 한 곳입니다. 위험하다는 이유하나로 맘대로 다녀 보지도 못한 그곳에서 때론 부루카를, 때론 차도르를 쓰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자신들의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죽이겠다고 하는 이곳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부루카를 쓰고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탈레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난민촌에 유목민 역사상 처음으로 천막이지만 학교가 세워졌고,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육부에 정식 학교로 등록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학교 네 곳의 전교생들에게 신발과 교복을 지원하였지만 더 많이 사랑을 주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12월에 실시한 의사의 건강검진 결과가 아이들 질병의 대부분이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여 생겼으며, 그로 인해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몇십년 만에 엄청난 눈이 내리고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멀고 위험하게만 느껴지던 아프간이 이제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도 손님들에게 유달리 환대를 해 주는,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1차 필리핀 선재수련을 다녀와서

지난 1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필리핀JTS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선재수련)이 진행되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가가후만 마을에 양어장 만들기, 꽃밭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고 돌아온 이들의 생동감 있는 현장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담아갑니다

김동진 | 한국외대 99학번

배낭들이 어지러운 발코니에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열심히 일했던 양어장이랑 일구다 만 밭이며, 산과 하늘 그리고 구름과 바람이 가가후만의 오후를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선재수련에 지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되짚어 봅니다. 오늘 일하던 도중 '왜 이곳에 왔는가' 하는 물음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활력소가 되는 것을 찾아서' 라고 대답했는데, 돌아보니 충분히 아니 기대 이상의 것들을 얻은 듯한 느낌입니다. 어떤 것들을 얻어가냐는 물음에 머뭇거리다가 '이곳 가가후만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간다' 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제리(가가후만 어린이)와 서로 인사하며 산을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서 짧은 2주간의 경험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것들을 가슴 속에 소중히 담고 갑니다. 가가후만의 아름다운 풍경, 밤하늘의 별들도 담아가지만 무엇보다 이곳 아이들과 보낸 시간을 소중하게 담아서 돌아갑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힘들고 지칠 때 우울하고 가슴 답답할 때 제리와 존드리, 막막, 보봉과 로사, 지사를 생각하며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시간을 함께한 선재수련 팀원들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돌아가서도 함께 자주 만나 이곳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이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작별인사를 할지, 조금 걱정됩니다.

딸라각 특수학교의 시각장애우들. 기타를 치는 알렉스와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선재팀 단장이 재경님(참가자)이 그린 부족의 마크를 들고 있다.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분은 가가후만 부족의 족장 다뚜. 다뚜님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지어 입은 전통의상이라고 한다.

우리와 세이비어대학, 히가오논 부족이 함께한 문화제에서 이슬람 전통 춤을 추고 있는 세이비어 대학생들. 이들은 가가후만에 와서 몇 일간 우리와 함께 작업을 했었다.

'Heal the world' 마이클 잭슨의 이 노래는 필리핀에서 내내 우리가 불렀던 노래이다. 손동작까지 만들어 모두 하나 되어 이 노래를 합창했다.

문화제가 끝나고 필리핀의 유명한 '오쵸오쵸' 노래에 맞춰 다 함께 댄스타임을 가졌다. 우와! 필리핀 아이들의 유연함이란, 아직도 그 몸짓이 잊혀지질 않는다.

문화제에서 우리의 신명난 사물놀이 한마당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가가후만에는 가스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방에는 으레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다. 열심히 작업했기 때문일까, 모든 것이 맛있었던 그 곳.

온 몸을 던져 곡괭이질을 하고, 땡볕에서 타고, 피부가 벗겨져가며 양어장 만들기 작업에 열중했다.

양어장 둑을 만들기 위한 돌 나르기. 마을 사람들은 낑낑대는 우리가 안쓰러웠던지 하나 둘 우리를 도와주었다.

둘이 협력해서하는 둑 다지기 작업. 작업반장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은근히 기술이 필요했던 다지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마을 경관 가꾸기 작업 중 울타리 만들기를 했다. 울타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줄을 만들기 위해 아바카 나무의 껍질을 뜯어 섬유를 뽑아내는 모습이다. 가가후만의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도 이 작업을 능숙하게 할 줄 안다.

마을 경관 가꾸기 작업으로 세이비어 대학생들과 함께 건물 주변에 심을 만한 어여쁜 꽃을 캐러 다니고 있다.

마을의 악동들! 우리와 가장 친하게 지낸 아이들이기도 하다. 앞줄의 막막이가 남자 아이라는 건 참가자 모두에게 쇼크였다.

아름다운 경치와 해맑은 아이들. 우리가 갔던 가가후만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다. 그 곳에 다녀온 것이 아직도 꿈을 꾼 것만 같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축제. 우리 모두는 가가후만의 체취가 담긴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한국에 온지 열흘이 넘어가는 지금도 걸고 다닐 정도로 애착이 간다.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마을의 악동인 보봉을 껴안았다. 헤어지는 날, 많은 사람들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언젠가 인연이 닿아 다시 만나길 바라며...

가가후만. 마을 언덕에 서서보면 나보다 높은 곳이 없는 마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구름에 뒤덮이는 마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가가후만에서의 추억은 선재 팀 모두에게 깊이 남게 될 것이다.

가면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백혜인 |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97학번

친구야, 여기는 필리핀이야. 민다나오 가가후만. 산을 몇 개를 넘어왔고, 정말 그 누구도 살지 않을 법한 그런 곳. 여기에도 마을이 있더라.

가가후만은 가난해. 주식으로 고구마를 먹으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더욱 가난하다. 내 마음은 너무 가난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볼 여유도, 다른 이들을 들여다볼, 눈을 맞출 여유도 없었어. 이곳을 찾은 이유도 계속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함이었어.

그 누구도 살지 않을 법한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은 온갖 비싼 물건들로 치장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위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저녁이면 음악에 맞춰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어울려 춤을 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가면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더라.

여기서 알게 된 친구 '에이마'에게 '꿈이 뭐냐고, 무얼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 없다. 지금 행복하다.'고 한다. 일곱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19살짜리 소녀의 천진하고 예쁜 웃음은 참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단다. 나는 무얼 찾고 무얼 기대하며 살았던 것인지…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나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들은 원칙과 소신, 자기수양과 이타심. 나랑은 무지 다른 사람들이었다. 도동과 트렐 아줌마, 만다나오의 평화를 꿈꾼다는 사람들이다. '한사람의 힘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해내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신념?

어딘가로 떠나온다는 건 자신이 있던 자리를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

내일 이곳을 떠난다. 산 여러 개를 다시 넘으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야 이곳에서 다시 보낸 시간들의 의미를 찾아가게 될 것 같다. 그냥 무작정 왔듯이 또 그렇게 무작정 떠난다. 그렇지만 언젠가 하루가 지치고 힘들면 이곳을, 그네들의 웃음을 떠올릴 수 있기를…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지현 | 한국JTS 사무국장

JTS의 사무국장인 이지현님은 정토회 총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JTS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토회 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되었다. 지난 6년간 JTS 책임자로서 활동해 오신 이지현 사무국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JTS의 사무국장님으로 활동하신 6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9년 제가 처음 JTS에 부임을 받고 무척 놀랐습니다. 누구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JTS를 맡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주로 교육, 청소년 관련 활동을 했었고, JTS 활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령을 받고 기뻤습니다.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릴 적에는 고아원 원장이 꿈일 만큼 오래 전부터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부임해 보니, 여러 가지로 생소한 영역이어서 일을 익히고 전체를 파악하는 데에만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또 실무책임자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초기 1~2년 정도는 새로운 일을 개척해 가면서 익숙했던 청소년사업에 에너지를 쏟기도 했지요.

맨 처음 부임 받고 부서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재정상황' 이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998년 수입액이 한 10억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요. 지금이야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그 액수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무척 큰 놀라움이었지요.

제가 활동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은 JTS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해외 현장 뿐 아니라, 자원활동 영역, 국내 모금 영역, 긴급구호 활동 영역, 대외 연대활동 등 전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인도JTS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나 현지와의 결합 정도,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노동

학교, 기술 중학교, 지바카병원, 마을개발 사업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 내에서도 자랑할 만한 해외 개발구호 사업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북한사업이 확대되어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였고, 그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등지의 현장이 개척되었고, 2000년 몽골지역에 생긴 한파 긴급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지진, 최근의 쓰나미 지진해일 피해 복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영역도 많이 확장되었지요. 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물품 모으기, 창고, 해외사업장으로 물품 보내기, 해외 자원봉사활동 등 많은 영역들도 활발해졌어요.

후원회원은 2,000여명에서 4,500여명으로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주로 북한 어린이돕기 후원에서 인도 및 제3세계 돕기, 통일돼지저금통 후원자 등 회원들이 골고루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들어오는 후원도 많아졌지요.

후원액은 1998년에 4억 천만원 정도였다면, 지난 2004년에 1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정부지원이나 프로젝트 지원비 등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 몇몇 사람의 고액 기부나 기업의 지원 등이 많지 않고 조금씩 후원하는 분들, 저금통 모으기, 거리모금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 및 개인들이 기부하는 물품의 후원도 놀랄 만큼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았던 해는 년간 7억원정도의 물품후원을 받기도 했지요. 이제는 원하는 물건은 어디서든 맘만 먹으면 후원을 요청해볼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어요. 6년전에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지요.

사회적 인지도도 무척 높아졌어요. 짧은 기간동안 활동이 활발하게 된 것도 이유이지만, 그 이외에도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JTS의 활동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첫째가, 라진선봉지역의 북한 어린이돕기 활동의 성과였고, 2002년 법륜스님이 '막사이사이상' 의 평화와 국제이해분야에서 수상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인도JTS 활동이 TV에서 여러 번 방영이 된 것도 한 몫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에 나서서 '굶고 있는 어린이를 도웁시다.' 라고 목청을 높여서 외치는 전국 정토회 자원활동가들의 활동과

열정이 오늘날 JTS를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한국에서 시작한 비교적 크지 않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및 긴급구호의 현장에 항상 JTS가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사업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어요.

새로 개척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어려움도 많고, 보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맘이 아프고, 인도JTS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2002년 1월 인도JTS에서 건축파트에서 자원활동을 하셨던 '설성봉님' 이 강도의 총격으로 돌아가신 일입니다. 지금도 설성봉님의 장례식 때 장작불에 님의 얼굴과 발이 활활 타올랐던 장면이 눈에 선하고, 저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일이었지요. 설성봉님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임을 알게 해 준 것이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프간 사업의 개척과 처음으로 컨테이너 7대를 보냈던 일, 그리고 지난해 4월의 룡천구호 활동의 경험까지.....

JTS내에서 더 활동하게 된다면 일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활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누구에게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애정이 깊어지듯 저 또한 초기의 맘과 달리 4년정도 되자 현장에서 활동해 보고 싶은 맘이 생기더라구요.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오겠지요.(웃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일이 좀더 개척되어야하는 북한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지요. 가장 가까운 곳과 가장 많은 돈을 지원했던 북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분단의 비극이지만, 많은

애착이 가는 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후임자들이 더 잘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향후 활동은 또 새로운 실무진들이 잘 이끌어 가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JTS 활동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것 또한 여러 가지이지요. 한국JTS의 활동을 모두 자원활동 영역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향후 과제입니다. 이제까지도 JTS는 일부 실무자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외현장이나 해외 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사장이신 법륜스님의 활동이 많은 후원활동에 영향을 미쳐왔고 정토회 회원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JTS의 후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의 후원동참 비율을 확대하고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모금의 기법과 기술도 개발해 가야 하구요.

그리고 후원자 분들에게 보다 빠른 정보 유통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야 하고, 청소년 ·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후원자 분들에게도 현장 답사 및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및 예결산 보고 등을 더욱 자세하고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장 고마웠던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지면에서 누구라 찍어 말해도 될까요?(웃음) 좀, 여러분이라서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유달리 고마웠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가까이에는 함께 일해 온 실무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고요(생각해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네요), 놓치지 않고 매달,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지요.

지금 돌아보면 6년간 책임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함께 한 분들을 잘 이해하며 성장하도록 돕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일을 앞세우고 나의 주장을 앞세워 JTS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되어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함께 해 오신 분들에게 미안함이 남아 있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마음공부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나도 어머니 마음으로

양종혜 | 자원봉사자, 안양고등학교 3학년

오랜만에 문경을 만났다. 한적한 거리,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 언제나처럼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 되는 그곳, 나지막하게 보이는 수련원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련생으로 참가하다가 처음으로 바라지를 해보았다. 내가 작년에 갔다 온 인도워크캠프 수련생들의 밥을 짓는 일.

중1때 처음 걸어 들어온 이곳은 그대로 인데 난 벌써 고3이 됐다.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번에 가는 친구들도 볼 겸 문경공기도 마셔볼 겸 찾게 되었다. 한 살, 두 살씩 먹은 나이 때문인지 수련생들은 모두 귀여웠고 오래 만에 보는 수련원도 정겨웠다.

일정은 2박 3일. 아침에 발우 공양을 하고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지어 올려보내고 나면 약간 한가한 시간. 조금 쉬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있었다.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일이 별로 힘겹지 않게 보였는데 어찌나 손이 많이 가고 욕심이 생기는지. 수련생들한테 맛있고 영양이 되는 밥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도왔다. 감자를 까고, 썰고, 나물을 다듬고, 접시를 닦아먹을 단무지도 썰고. 도우미가 4명에 책임자이신 우리 어머니까지 모두 5명인데 은근히 힘들었다. 솔직히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하신 건 어머니셨지만 내 딴엔 투덜거리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말이 좀 많았다.

이렇게 힘들게 한 끼, 한 끼 밥을 지어 보내면서 '맛있게 먹을까, 좋아해야 할 텐데' 하며 또 다음 식사를 준비하곤 했다. 하지만 가끔 맛이 없다는 수련생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가서 알밤을 주고 싶었던 건 불같은 내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역시 이런 걸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나보다. 하나하나 정성들여 만든 한 끼의 식사. 오직 이 곳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맛. 이제, 앞으로도 많은 도우미 활동을 해서 더 많은 이들의 입가에 사랑의 밥알이 넣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동전의 가치

김순연 | JTS 자원봉사자(통일돼지 팀)

김순연님은 JTS 자원봉사자로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진 통일돼지 저금통의 동전을 분류하고 샘하고 입금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잠깐 볼일이 있어 두터운 코트를 걸치고 거리에 나섰다가 멈칫 무안해졌다. 무겁고 칙칙한 누빔 옷들이 거짓말처럼 들어가고 얇은 옷들로 바뀌어 있다. 그리 생각해보니 오늘이 우수라고 했겠다. 우수는 입춘 다음의 절기로 비가 온다고 했지, 말만 들어도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융화할 것 같은 어감에 금방 밝아진다. 비상구 없는 터널구간을 얼마나 가슴조이며 걸어온 겨울인가. 우리에게 이 힘든 겨울이 북한의 가난한 이웃에게는 얼마나 맵고 또 길었을까? 배고픔과 질병이 눈망울 깊숙한 북한 아이들에게 추위나마 거두어 주는 우수가 진객처럼 반갑다.

JTS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식당, 사무실, 가정집 등에 돼지저금통을 분양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전국각지에서 키워온 돼지저금통을 뜯고 그 안에 가득한 동전들을 헤아릴 때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동전 한 닢의 무게는 가볍고 그 가치

는 보잘 것 없지만 돼지를 키운 사람의 마음이 담긴 동전이 한 닢, 한 닢 모이면 얼어붙은 북녘 땅을 녹이고도 남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주 눈앞에서 목격한다. 특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동전을 배고픈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 달라며 '친구들아 힘내, 용기 잃지 마' 라는 메모까지 적어 같이 넣어 보낸 것을 볼 때면 그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가 동전을 모으는 순간만큼은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되찾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 전 우리 딸이 몇 시간 동안 동전을 세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그 작업이 짜증스럽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 오히려 수많은 동전을 헤아리며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량한 사람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생각에 동전 한 닢을 정성스럽게 세어보고 또 세어보게 된다. 돼지를 키워오는 사람들과 동전 작업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느끼게 해준 JTS에 감사할 따름이다.

2005년 세금공제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

2월 초, 지로와 세금공제영수증에 대한 편지글을 보내드렸으나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세금공제영수증 발급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후원자 이름으로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발급자는 실명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고, 가족 이외 많은 분들이 함께 모금을 하실 경우 후원자 참고사항에 다른 분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 드릴 것입니다.

▶ 통일돼지저금통 성금의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미리(매년 11월 20일 이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바로 알려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JTS에서는 회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인명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회원에 대한 입력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원프로그램에는 향후 변경되는 영수증 양식과 발급 원칙에 맞추어 입력 작업이 진행되므로 영수증발급을 위해 변경될 후원자 이름이 있으시거나 주민등록번호의 보완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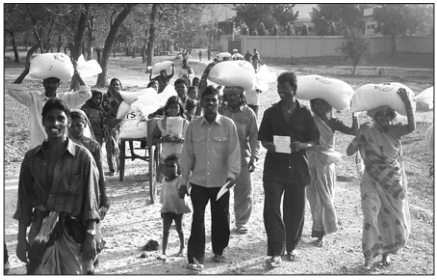
▣ 문의 : 한국JTS 총무부장 최대원심(02-587-8756 / E-mail : pr@jts.or.kr)

인도 지원 및 현지활동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구호활동

지난 해 12월 26일 남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9일 피해지역 인도 첸나이로 4명의 조사단을 파견하고,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총 47명이 타밀나두 주, 따랑구르 마을에 파견되어 긴급구호 활동(의료, 쓰레기청소, 집수리, 무료급식)을 펼쳤다.

●둥게스와리 인근 주민에게 식량지원



인도JTS 이사장 법륜스님은 1월 21일,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벼농사를 못 지어 기근에 처한 쟈그디스푸르, 두르가푸르 209가구 주민들과 인도인 활동가들에게 쌀 10kg씩, 총 3,640kg을 전달하였다.

또한 도로보수를 위한 마을별 쉬람단(마을공동노동)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일당 3Kg의 쌀을 분배하였다. 총 50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르가푸르, 쟈그디스푸르 유치원 개원식

1월 9일은 두르가푸르 유치원 개원식, 이어 1월 10일은 쟈그디스푸르 유치원이 개원식을 가졌다. 인도성지순례단 100여명과 함께 마을사람들의 춤과 노래잔치로 즐겁게 진행되었다. 올해부터는 15개 유치원, 총 2,20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자타아카데미 개교 11주년 기념식

1월 10일, 수자타아카데미 개교 11주년 기념식에 보드가야 대탑 주지스님 이하 지역인사들과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자, 대학생(선재수련), 그리고 행사의 주인인 수자타아카데미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학생들과 마을리더, 마을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하여 시상과 문화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로 거행되었다.

●수자타아카데미 '까나홀 분교' 개원

2월 7일, 까나홀에 수자타아카데미 분교가 개원되었다. 까나홀, 바가히, 가왈비가, 스리람푸르, 모라탈, 자르하리 등 산 넘어 마을의 1학년 86명의 신입생들이 분교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다. 수자타아카데미 9, 10학년 4명이 교사로 있으며, 학생들은 2학년까지 분교에서 다니고 3학년부터는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까나홀 분교생 86명과 본교생 450여명, 모두 540여명의 어린이들이 수자타아카데미 운동장을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인도인 활동가, 법륜스님과 숙박수련

지난 1월 20일, 수자타아카데미 교사, 중고등학생, 청소년 노동학교 학생, 수자타 기술학교 학생, 마을개발 교사와 마을지도자 등 인도인 활동가 126명이 법륜스님을 모시고 1박 2일의 숙박수련을 하였다.

좋은 학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갖고 법륜스님께서는 바로 그런 학교를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들어내자고, 가난하지만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고 격려하셨다.

●3월, 첫 졸업식을 갖는 YSS

3월에는 청소년 노동학교(YSS) 3학년, 모두 6명의 첫번째 졸업식과 4기 1학년 신입생 입학이 있을 예정이다. 졸업생 6명은 3월부터 인도JTS의 공사팀에 합류하여 그동안 배운 기술을 갈고 닦는 실습과정을 거친 후 공사팀의 핵심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토회 대학생부 인도, 필리핀 선재수련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정토회 대학생부에서 인도에 선재수련을 다녀갔다. 총 73명이 참가하여 둥게스와리 마을에서 유치원 담장 쌓기, 배수로공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참가자 중 일부는 인도 남부 지진해일 피해지역의 긴급구호에도 참가하였다.

필리핀 선재수련은 1월 4일부터 보름동안 필리핀 민다나오 섬, 가가후만에서 진행되었다. 35명이 참가하여 민다나오 섬의 산 정상에 있는 가가후만 마을에 양어장 만들기, 꽃밭 가꾸기 등의 작업과 필리핀 대학생들과 평화를 모색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인도 워크캠프 진행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5박 16일 일정으로 청소년 15명과 교사및 스텝 9명이 인도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켈커타의 죽음을 기다리는 집과 둥게스와리 마을 유치원 벽화그리기, 우물가 플랫폼 만들기, 아이들 목욕시키기, 인도학생 집을 방문하고 체육대회를 하며 인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외 단신

–수자타아카데미 1학년 136명, 6학년(중학생) 23명의 입학식이 지난 1월 25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거행되었다.

–2월 12일, 수자타아카데미 6학년과 중고등학생 60여명에게 교복을 나누어 주었다.

–2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밭에 심어놓은 무를 뽑아서 학생들과 함께 무김치를 담가 매일 점심때 먹고 있다. 제법 김치 맛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건강 증진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은 비하르주 가야지역의원 선거일로 평화로운 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이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머물렀다. 올해는 특히 잠무 카시미르의 파키스탄 전방지역 군인 75명이 왔는데 대대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군대 생활과 전방의 분위기 등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해주어 우리학생들에게 군인에 대한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해마다 1월이면 마을간의 단합과 협력을 위한 축구대회가 펼쳐진다. 1월 9일에는 16개 마을 대항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까나홀'이 우승하여 트로피가 주어졌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현지활동

●칸다하르, 교복 · 신발 지원과 준공식

엄청난 폭설로 인해 12월 말로 예정된 칸다하르 학교 어린이들의 교복과 신발 지원이 늦어졌다. 몇 번의 시도 끝에 1월 1일부터 3일간, 모하메드 잔, 말랙, 하지 악바르, 쉬르알리 4곳의 칸다하르 난민캠프 1,000여명의 어린이에게 신발과 교복옷감을 분배하였다. 그동안 추운겨울에 신발도 없이 헤진 옷을 입고 다니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또한 교복을 입고 배움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게 될 것이다.

더불어 카불북쪽 사카르다라의 다리 3개와 마을회관 준공식이 지난해 12월 23일 거행되었다.

국내소식

●쓰나미 피해지역 지원활동 전개

12월 27일, JTS에서는 피해국가의 한국주재 대사관을 통해 긴급하게 성금을 전달하고, 온라인을 통해 성금모금을 펼치는 한편 전국적으로 거리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피해지역인 남인도 타밀라두주 라사베따이 지역에 47명을 파견하여 6일간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긴급구호물품 지원

주방용품셋트와 문구류셋트, 지붕을 만드는데 사용할 천막천 등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을 1월 29일 부산항에서 선적하였다. 이 구호물품은 2월 10일 스리랑카 콜롬보항에 도착, 사르보다야 운동본부에 전달되었다.

●긴급재난토론회 토론자로 참가

1월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해외 긴급재난구호체계의 점검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이지현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경북 가은 독거노인께 라면전달

지난 해 추석, 생활용품을 100여명의 독거노인 분들께 지원한데 이어, 2월 1일 설날을 앞두고 경북 문경시 가은읍 독거노인 100여분께 라면을 한 박스씩 나눠 드렸다. 여러분들의 성금과 후원물품으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훈훈한 정을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지진해일 긴급구호활동 소개, 원음방송출연

2월 23일, WBS 원음방송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푸른 솔들의 합창'에 JTS의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활동에 대한 방송이 있었다. 김애경(JTS 자원개발부 부장), 서동우(대학생), 유재원(대학생)님이 참석해 남인도 긴급구호활동과 스리랑카에 긴급구호물자를 보낸 내용과 소감 등을 나누었다.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2월 20일까지

1. PAT 재활용의류 361박스 4000여장
2. 동학사 이불 295채
3. 김은환 어린이의류 300여장
4. 대경산업㈜ 작은맬라닌쟁반 250개
5. 코오롱인터내셔널㈜ 천막천 80인치 16롤
6. 강재연 치약11, 수건1
7. 운문사 양말 36, 런닝10, 팬티4
8. 해운대정토법당 생필품 3박스 수건80, 비누280, 치약100
9. 마산정토법당 여상의99, 여바지52, 남자바지41, 남자상의85, 어린이바지56, 어린이상의103, 수건25, 치약8, 비누35, 칫솔9
10. 울산정토법당 수건20, 비누60, 치약20, 칫솔70
11. 진명숙 칫솔2, 비누2
12. 용운사 비누, 수건, 양말, 내복 등 생필품 3자루
13. 남장사 수건3, 팬티5, 양말11, 재활내복1, 웃옷2, 속바지1
14. 무주상 치약4, 내복2
15. 섬진강변 물거사 점퍼1
16. 김한욱 이불, 요, 베개 20셋트
17. 동학사 양초 중자50, 대자38
18. 문빈정사 내복2, 런닝61, 팬티58, 팬티런닝셋트11
19. 남궁영임 치약14, 비누9, 칫솔2
20. 배명자 수건6, 칫솔15, 모자1, 목도리1

●동학사 이불지원

1월 11일, 동학사에서 북한에 보내달라고 이불 295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동학사 신도분들과 학인스님께서 함께 모아주신 것이랍니다. 총무스님과 교무스님께서 여러 차례 운반문제로 전화를 주셨는데 10일 받으려고 하다가 눈이 와서 11일 전달받았습니다. 운반은 옥침대 판매를 하시는 정상우 동학사 신도님께서 트럭을 대여해 주셨습니다.

300채를 준비하셨는데 절에서 내려 보내다가 형편이 어려운 가까운 이웃에게 5채를 주셨답니다. 다정도 하시지요. 감기 기운에 잠긴 목소리로 자세하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신 총무스님과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북녘 땅까지 전해져서 매서운 겨울추위도 훈훈하게 녹여질 것 같습니다.

●평안섬유공업(주) 피에이티 의류지원

1월 7일, 평안섬유공업(주)에서 피에이티 의류를 보내주셨습니다. 5톤 탑차 2대, 361박스 분량의 의류입니다. 분류작업은 9일, 40여명이 모여 계절별로 수량을 파악하여 265박스로 만들었습니다.

4월에 지원해 주신 의류 250박스는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때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후원해 주신 의류는 처음에는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피해가 심한 스리랑카로 보내려고 하였는데, 조불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선뜻 의류를 지원해 주신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와 운반을 해주신 분들, 분류작업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성금집계현황

어려움 속에서도 큰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월 16일 현재 성금총액 : 82,256,429원 + $3,879.79

(주)유코레일제임스(200만원) (주)캐빈컴(200만원) 2005년년력후원단체-(사)맑고향기롭게,불교인권위원회,불교자원봉사연합회,자비의집,동산반야회,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사)우리는선우,(사)한국제이티에스,월간정토,서울정토법당(528,000원) 313차깨달음의장(45,000원) 7821부대선봉사(100만원) Charles Kim(200불) Son's Quality Food Company(100불) Son's Quality Food Company(200불) 감명희(5만원) 강도현(3만원) 강명숙(5만원) 강신숙(10만원) 강영주(5만원) 강윤규(10만원) 강은주(1만원) 강은주(1만원) 강태금(10만원) 고경희(10만원) 고리곤(1만원) 고복순,고창금(100불) 고창무(2만원) 고현숙(10만원) 고현진(10만원) 공성미,공보성(10만원) 곽영술(100만원) 광양고2-2 (226,700원) 광주법당거리모금(216,110원) 구만석(20만원) 구상순(1만원) 구포중교직원일동(39만7천원) 국선도사당수련원(10만원) 권대순(2천원) 권미영(10만원) 권민수(5만원) 권순범(7만원) 권승숙(10만원) 권영숙(10만원) 권오철(5만원) 권윤정(14만원) 권정원(5만원) 권혜숙(5만원) 그들에게자비(10만원) 길순영(5만원) 김경미(50만원) 김광선(2만원) 김근식(5만원) 김기선(50만원) 김기홍(5만원) 김남순(50만원) 김남식(20만원) 김동곤(5만원) 김동수(10만원) 김동일(10만원) 김명숙(10만원) 김문희(5만원) 김미경(1만원) 김미선(3만5천원) 김미혜(10만원) 김민경(5만원) 김민정(20만원) 김병삼(2만원) 김병현(10만원) 김보미(30만원) 김보성(1만원) 김봉수(4만원) 김봉준(5만원) 김상순(8만7천원) 김상태(10만원) 김서연(3만원) 김선자(1만원) 김수현(3만원) 김순덕(32만원) 김승정(2만원) 김승진(23만원) 김애경,민병덕(5만원) 김애식(5만원) 김애자(3만원) 김애자(5만원) 김연문(100불) 김영수(30만원) 김영숙(10만원) 김영숙(5만원) 김영신(1만원) 김영신(3만원) 김영아(3만원) 김영운(2만원) 김옥순(1만원) 김옥정(31,140원) 김원달(1만원) 김윤태,구미경(5만원) 김은자(10만원) 김응(5만원) 김인순(1만원) 김재영(5만원) 김재웅(50만원) 김재희(100만원) 김정명(2만원) 김정숙(3만원) 김정자(5만원) 김정주(10만원) 김정칠(1만원) 김정호(3만원) 김종복(100만원) 김종완(10만원) 김중수(10만원) 김지효(2만5천원) 김진우(3만원) 김찬희(10만원) 김천법회(11만8천원) 김충진(100불) 김태권(7만원) 김태균(2만원) 김태우,한승희,김차민(30불) 김택수(200불) 김하식(60만원) 김향숙(9천원) 김형수(10만원) 김형숙(34,905원) 김혜경(10만원) 김혜숙,윤홍섭(100불) 김혜영(5만원) 김혜진(2만원) 김혜진(2만원) 김홍미(5만원) 김환홍(3만원) 김희정(20만원) 김희정(5만원) 김희준(5만원) 남현승(1만원) 남현정(1만원) 남호스님(20만원) 노귀남(5만원) 노재국(100만원) 노태곤(5만원) 노혜숙(2만원) 대구법당주간반(1,191,830원) 대구법당주간반(204,530원) 대구법당주간반거리모금(304,390원) 대구삼보사(30만원) 대전법당거리모금(161,460원) 동래법당거리모금(22만원) 동래신도부모금(244,550원) 동래야간자원활동가(313,110원) 동래주간자원활동가(200,860원) 류미향(2만원) 류승묵(50불) 류승묵거리모금(128불43센트) 류현복(20만원) 류홍기(20만원) 류희원(2만원) 마경숙(100만원) 마산거리모금(634,090원) 마산법당거리모금(1,094,490원) 마산법당거리모금(286,290원) 마산법당거리모금(366,550원) 마산법당거리모금(720,330원) 맹영숙(5만원) 맹희섭(3만원) 묘당,보광화(5만원) 무명(1,000만원) 무명(100만원) 무명(10만원) 무명(10만원) 무명(10만원) 무명(10만원) 무명(1만원) 무명(7천원) 무변심(5만) 문상인(10만원) 민덕홍,김순영(50불) 박경미(2만원) 박규석(50만원) 박금석영가(10만원) 박기범(10만원) 박기선(10만원) 박기일(10만9천) 박기추(5만원) 박길홍(10만원) 박노옥(5만원) 박미라(1만원) 박미령(10만원) 박미성(10만원) 박미혜(5만원) 박미홍(10만원) 박복순영가(20만원) 박봉진(10만원) 박새은(1만원) 박선애(5만원) 박선영(2만원) 박선화(5만원) 박성연(1만원) 박순동영가(1만원) 박승자(30만원) 박연실(20만원) 박연호(10만원) 박영민(10만원) 박영숙(100만원) 박영숙(1만원) 박영재,박병선(10만원) 박외현(5만원) 박우식(3만5천원) 박은우(10만원) 박은주(5만원) 박정선(1만원) 박정숙(10만원) 박정희(10만원) 박정희(1만원) 박준자(30만원) 박지숙(1만원) 박지원(1만원) 박지현(10만원) 박진현(10만원) 박찬교(5만원) 박태화(100만원) 박현숙(10만원) 박희숙(10만원) 방명자(10만원) 배승태(5만원) 배외선(3만원) 백상희(1만원) 백석희(5만원) 백윤숙(3만원) 백창열(1만원) 변기환(50만원) 변인환(20만원) 보련화(5만원) 부부선재회(10만원) 부산동래거리모금(154,000원) 부산동래법당모금함(3만8천원) 부산동래법당주간거리모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성금집계현황

금(245,710원) 부산소림사종우스님(15만원) 상도동태흥아파트주민일동(15만원) 색즉시공(35만7천) 색즉시공(63만원) 서대하(5만원) 서동영(10만원) 서예랑(3만원) 서울법당거리모금(129,690원) 서울법당공양간팀거리모금(87,280원) 서울법당명동거리모금(2,199,680원) 서울법당정토합창단거리모금(61,400원) 서울법당지장부바라지팀(148,700원) 서울법당청년정토회모금(472,096) 서울법당활동2부(146,920원) 서울수요법회청년회모금(7만6천원) 설상수, 김정선(10만원) 성주연(46만원) 손명옥(2만원) 손미옥(1만원) 송민화(10만원) 송수월화(10만원) 송유은(2만원) 송재자(30불) 송정현(3만원) 송평수(30만원) 시병권, 강옥희(5만원) 신경옥(4만5천) 신동열(10만원) 신동빈, 전영주(30불) 신미혜(10만원) 신세권(5만원) 신순남(5만원) 신청구(5천원) 신해리(10불) 신혜정(5만원) 심란(3만원) 심유현(5만원) 심주석(10만원) 심지희(10만원) 아시아구호활동(10만원) 안병주(30만원) 안수연(20불) 안우근(5천원) 안재연(20불) 안재춘(20불) 안정엽(2만원) 안정자(5만원) 안현정(2만5천원) 양명옥(10만원) 양승원(2만원) 양윤순(5만원) 양제혁(5만원) 양현애(10만원) 양형진, 조기숙(1,000불) 엄창수(192,200원) 여몽(1만원) 여수연(5만원) 연동회(5만원) 연화회(20만원) 염선희(10만원) 염윤희, 문정호(30만원) 오세현(3만원) 오정숙, 김향(5만원) 오태양(2만오천원) 우영옥(1만7천원) 울산법당거리모금(211,750원) 울산법당거리모금(236,300원) 원치황(100만원) 유경자(10만원) 유금(10만원) 유상록(7만원) 유수현(10불) 유애경(10만7천5백원) 유영옥(1만원) 유인경(3만원) 유인자(10만원) 유재연(3만원) 유진호(40만원) 유향숙(3만원) 윤명옥(5만원) 윤슬기(10만원) 윤인숙(3만원) 윤정숙(5만원) 윤정희(4만원) 윤종한(20만원) 윤준식(10만원) 윤형락(10만원) 윤호현(2만원) 윤효남(2만원) 이가은(10만원) 이경선(30만원) 이경숙(5만원) 이경숙(5만원) 이경영(10만원) 이경해(10만원) 이경희, 이중희(15만원) 이광섭(3만원) 이규태(10만원) 이대경(5만원) 이명세(3만원) 이명숙(3만원) 이명환(10만원) 이미경(5만원) 이상근영가(2만원) 이상림(3만원) 이상연(2만원) 이상흔, 이성미(10만원) 이새롭(3만원) 이선경(10만원) 이선성(10만원) 이선영(100만원) 이소연(5만원) 이수근(20만원) 이수철(10만원) 이숙, 박명기(2만원) 이숙현(3만원) 이숙희(3만원) 이승은(100불) 이양옥(1만원) 이연순(100불) 이영규, 조민규, 조필규(10만원) 이영숙(1만원) 이옥취영가(1만원) 이원영(10만원) 이윤희(2만원) 이윤희(5만원) 이은선(5만원) 이은숙(5만원) 이은순(100만원) 이은주(1만원) 이인자(20만원) 이인퍼니처(26만원) 이재륜(1천원) 이재륜(2천원) 이재헌(50만원) 이정기(10만원) 이정현(120불) 이종애(1만원) 이종철(41만5천원) 이주오(5만원) 이준수, 송은호(10만원) 이지현(23,798원) 이진갑(5만원) 이청도(10만원) 이태영(50불) 이태호(5만원) 이한우(5만원) 이현옥(5만원) 이현정(4만원) 이혜옥(10만원) 이혜정(3만원) 이호준(10만원) 일과놀이(60만원) 임부영(1만원) 임선희(150불) 임선희, 안재연거리모금(100불77센트) 임성규, 차순자, 임채은(10만원) 임영광(10만원) 임영광(20만원) 임지수, 김판건(20만원) 임호진영가(100만원) 작은정성(10만원) 장경식(5만원) 장금옥(2만원) 장도연(2만원) 장석환(5만원) 장성호(10만원) 장성호(3만원) 장세은(10만원) 장승승(30만원) 장지원경(8만원) 장진만(3만원) 장진희(10만원) 전광석(2만원) 전병득(9만1천원) 전병임(3만1천원) 전양순(2만원) 전외자, 정경주거리모금(103,540원) 정권화(10만원) 정귀조(30만원) 정근영(10만원) 정근원(10만원) 정근혜(3만원) 정미숙(100만원) 정선화(5천원) 정수훈(1만원) 정순덕(3만원) 정양수(10만원) 정영미(5만원) 정유진(20만원) 정은주(10만원) 정인권(100만원) 정재영(5만원) 정정옥(5만원) 정태경(1만원) 정토대학생거리모금(489,450원) 정한정(5천) 정혜선, 정연선(10만원) 정흥식(5만원) 조순애(5만원) 조정숙(5만원) 조협(5만원) 조홍순(1만원) 주간반모금함(4만원) 주해연(209,400원) 주형규(3천원) 죽향(10만원) 진성일(3만원) 차지근(50불) 창호선주(10만원) 채성진(1만원) 청년정토회(4만) 청주법당거리모금(374,610원) 최경숙(53불) 최경숙거리모금(207불59센트) 최경호(50불) 최광수(20만원) 최국빈, 최진아(400불) 최대원심(5만원) 최동호(5만원) 최말순(100만원) 최명희(100만원) 최문숙(10만원) 최봉자(5만원) 최상희(10만원) 최상희(10만원) 최성자(100만원) 최성희(3만원) 최소담(2천원) 최용곤(10만원) 최은애(3만원) 최재곤(2만원) 최재두(5만원) 최정희(5만원) 최지영(10만원) 최지영(10만원) 최하늘(5천원) 최한운(3만원) 최홍수(5만원) 터공부방(15만6천원) 팽종연(2만원) 평택군문초등학교전교생모금(20만원) 하경화(3만원) 하근수(2만원) 하인경(10만원) 한김지영(5만원) 한만조, 최금자(20만) 한영실(103,640원) 한영택(10만원) 한울타리(50만원) 한응수(10만원) 한지희(5만원) 한호경(5만원) 해운대법당모금(4만3천원) 해운대법당모금함(446,200원) 해운대법당성금모금(5만5천원) 해운대법당야간거리모금(110,760원) 해운대법당주간거리모금(487,120원) 해일구조(50만원) 허영숙(3만원) 홍사철(3만원) 홍영주(10만원) 홍태의(5만원) 황수경(2만원) 황승오, 이은정(5만원) 황지환(10만원) 황창오(5만원) 황현심(10만원)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5년 2월 15일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5년 2월 15일 현재

신규회원(개인,단체) 명단

2004년 11월 16일부터 2005년 1월 15일까지

북한 어린이 결연

안지숙 211-12088-11
이동준 211-12089-11
강신준 211-12097-11
권경순 211-12103-11
김철수 211-12105-11
황정화 211-12106-11
김정아 211-12107-11
김옥진 211-12108-11
이숙희 211-12109-11

인도 어린이 결연

이정환 111-03620-14
유혜경 111-03621-14
이정규,윤정희 111-03640-14
임재현 111-03640-14
신미화 111-03641-14
정명아 111-03643-14
한순자 111-03644-14
한호경 111-03645-14
이명순 111-03646-14
오태희 111-03647-14
윤봉숙 111-03648-14
김현옥 111-03649-14
박명옥 111-03653-14
정춘순 111-03654-14
남영채 111-03655-14
김인덕 111-03656-14
박병준 111-03657-14
고순화 111-03658-14
남원근 111-03659-14
신수현 111-03660-14
윤영옥 111-03661-14
강성진 111-03662-14
서소영 111-03663-14
이현주 111-03664-14
정은용 111-03665-14
최은주 111-03665-14
양미숙 111-03668-14
진상스님 111-03669-14
김미양 111-03670-14
김정명 111-03671-14
김미현 111-03672-14
한영자 111-03673-14

북한개발후원금

이재숙 611-01857-16
홍영주 611-01860-16
방선영 611-01875-16
정윤기 611-01876-16
김다정 611-01877-16
안혜경 611-01878-16
유영건 611-01879-16
홍언년 611-01883-16
백순천 611-01884-16
임 호 611-01885-16
노인남 611-01886-16
김정열 611-01887-16
허윤숙 611-01888-16
정덕조 611-01889-16
장현옥 611-01890-16
이영길 611-01891-16
한은주 611-01892-16
임근창 611-01893-16
양경원 611-01894-16
김윤아 611-01895-16
김신미 611-01896-16
고정희 611-01897-16
성종호 611-01898-16
이화자 611-01899-16
조영주 611-01900-16
박수정 611-01901-16
김여중 611-01902-16
김성규 611-01903-16
남현진 611-01904-16
조예나 611-01905-16
박해숙 611-01906-16
최기환 611-01907-16
유화자 611-01908-16
박현수 611-01909-16
김미자 611-01910-16
김훈철 611-01911-16
이선균 611-01912-16
하현수 611-01913-16
신부경 611-01914-16
박범준 611-01915-16
박기현 611-01916-16
김황운 611-01917-16
배예현 611-01918-16
신석순 611-01919-16
최은서 611-01920-16
정기선 611-01921-16
조육환 611-01922-16
임관혁 611-01923-16
김정우 611-01924-16
이경숙 611-01925-16
김재원 611-01926-16
이은송 611-01927-16
정선자 611-01928-16
손장곤 611-01929-16
이춘열 611-01930-16
윤원석가족 611-01931-16
박은주 611-01932-16
조현정 611-01933-16
정선길 611-01934-16
박순경 611-01935-16
주은정 611-01936-16
문사현 611-01937-16
한정태 611-01938-16
서동진 611-01939-16
심미향 611-01940-16
홍석완 611-01941-16
유희연 611-01942-16
신동명 611-01943-16
전경녀 611-01944-16
박은주 611-01945-16
김귀옥 611-01946-16
김진영 611-01947-16
이영희 611-01948-16
이인숙 611-01949-16
김태우 611-01950-16
김정희 611-01951-16
정상철가족 611-01952-16
용호동새마을금고 611-01953-16
송경애 611-01954-16
김태권 611-01955-16

특별 후원금

이교준 20$
김숙영 30$
김소연 1000$
김유미 3000$
박애자 100$
김명희 100$
데보라 차 100$
이종경 50$
윤소희 50$
김미카엘 50$
박난주 10,000+952Rs
권용석 62Rs
경현스님 2,180Rs
경훈스님 1,710Rs
권정숙 650Rs
차상옥 405Rs
김정원 600Rs
박은주 100Rs
정순둘 70Rs
신동헌 280Rs
김민성 160Rs
권용숙 51Rs
채옥엽 260Rs
김홍길 75Rs
무주상 2,154Rs
고순화 100$
조중래 80Rs
원광스님 2,170Rs
이현정 140Rs
김진형 60Rs
김승정 620Rs
뉴욕정토회 1312.36$
청년통일네트워크 2,000,000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광주법당

광주비아생협 12,890 광주은행남부지점 29,770 국민은행첨단지점 10,570 김귀순 7,980 무명 15,790 빅마트두암점 11,740 엄창수 21,830 엄창수 17,340 영진약국 16,180 이민하 7,080 이선주 25,380

대구법당

고광훈 34,270 그린비 2,370 김광희 730 김보미 2,200 김성수 1,920 김수경 16,470 김순녀 27,970 김순덕 32,120 김영백 35,760 김영재 18,780 김인애 10,350 김정은 2,030 김진희 18,850 김희수 91,000 남외순 12,040 대구은행삼덕2가 15,470 명심각 41,340 명심각 11,100 무명 38,450 무명 18,900 무명 22,840 무명 10,450 무명 20,140 무명 37,400 무명 24,500 박광숙 34,870 박상보 24,020 박혜민 11,410 배남주 17,140 법인스님 36,300 송상옥 16,170 송상옥 36,560 송영호 1,970 신정덕 14,320 심지연 13,120 오동민 2,120 운티근 20,040 유옥문 11,780 이선희 8,710 이승복 14,450 이의진 23,730 이정환 24,670 이준호 22,890 이준호 26,200 이진용 24,510 이태영 5,080 이태헌 2,780 전병찬 22,950 전병찬 22,800 정분이 16,010 정정자 48,700 지명지 28,060 지장주 15,800진 미숙제자48명 259,710 채상기 22,850 채윤석 2,790 최정순 31,730 최정희 25,060 최춘희 5,040

대전

고은결 31,800 곽봉준 33,050 김경태 18,970 김다현 6,030 김다흰 12,520 김도현 44,740 김순돌 30,000 김정기 3,580 김정우 19,260 김찬솔 5,390 김창근 3,530 김택주 18,150 김한얼 12,520 나누리 17,870 무명 10,990 무명 17,280 무명 25,880 무명 5,360 무명 4,440 무명 6,600 박영인 24,450 박최윤정 19,100 배규상 36,750 배현주 16,160 설태인 17,690 소수연 9,370 소희수 4,360 소희윤 2,970 신영민 41,160 심석영 27,270 유근회 19,890 유순호 28,400 유연희 4,920 이광길 14,570 이상화 11,800 이상훈 5,970 이수진 6,710 이운희 26,750 이정미용실 32,410 이준석 18,900 인수한의원 19,420 정경주 20,030 정봉진 28,640 제순희 30,760 한형인 30,230 홍승표 19,790 황귀숙 62,990

동래

강가령 24,500 강봉현 19,400 강인욱 20,380 강인혁 24,170 김경희 33,900 김주자 42,080 김태훈 4,830 무명 25,570 무명 17,890 무명 46,000 무명 129,960 무명 5,210 문금숙 16,270 박갑준 6,660 방황자 65,850 법문주 17,010 법문주 133,250 법문주 21,100 법문주 18,380 법문주 88,830 서창초등교4-4 56,750 손월선 13,700 이기옥 40,530 이인순 12,620 이향순 127,970 이향순 21,450 임귀선 7,470 임지석 24,800 조형준 25,200 최성희 18,930 최은아 11,600 허성준 72,920 홍말희 25,000 황정호 11,050

마산

강문선 17,510 강지윤 12,260 김성순 13,740 김연숙 17,310 김영자 48,200 김정희 26,920 남아경 10,280 무명 16,090 무명 16,260 무명 20,320 무명 10,250 무명 17,670 무명 22,030 무명 16,140 무명 56,620 무명 16,220 박명희 19,770 박명희 277,160 박영대 5,920 배정아 28,650 백주은 14,050 서동찬 17,050 서동찬 22,740 선재동자원 49,400 안훈성 67,000 엄희택 30,500 여태민 50,800 외환은행두산출장소 23,010 유말순 22,080 유말순 12,360 유말순 20,460 윤창민 22,830 이명남 22,010 이명세 47,000 전예은 18,400 정상복 28,700 정연희 54,270 ㈜태안 15,880 찻물소리 18,690 창원병원 신세권 23,100 창원병원 신세권 33,010 채병무 5,960 천리교저산포교소 50,690

서울

강송죽 5,000 강웅 18,500 강유신 25,480 고근석 38,720 고은비 11,190 국민은행풍향동지점 16,360 권망택 17,260 김가람 500 김경희 24,310 김기현 32,260 김동연 27,750 김 명석 20,500 김명석 33,580 김무로 35,500 김보경 63,750 김부례 4,770 김서희 24,560 김성림 600 김성진 5,740 김애심 22,820 김애자 23,860 김영범 27,970 김영신 31,000 김의성 33,710 김인기 1,950 김정숙 12,830 김정자 34,800 김정화 23,930 김종숙 13,400 김지향 10,050 김한옥 14,610 김향 25,880 김현숙 29,260 김혜영 64,250 김희태 20,170 노미희 26,120 무명 740 무명 2,000 무명 1,570 무명 500 무명 900 무명 1,000 무명 2,180 무명 7,720 무명 4,150 무명 1,000 무명 23,350 무명 25,000 무명 31,130 무명 13,620 무명 14,370 무명 21,900 무명 23,920 무명 4,440 무명 21,000 무명 160,880 민재 27,270 박대준 4,160 박봉진 38,930 박서혜 8,420 박영숙 13,970 박은비 12,750 박종수 29,650 박지원 5,370 방금선 5,000 분당하나원65기 74,620 서병하 28,160 서병화 56,640 서병화 4,680 서병화 57,930 서재윤 10,310 설갑원 10,630 송유정 4,910 수미산 37,200 신기민 740 신주균법무사직원일동 34,350 신죽식 3,340 신현만 2,870 안성하나원 64기 25,910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안성하나원65기 51,440 안승욱 26,430 안정연 18,390 안희진 25,780 안희 진 22,930 양명숙 13,400 양한석 5,750 여백순 50,000 여백순 50,000 오금실 14,940 오금실 29,330 오병선 13,390 원동미 2,000 유명규 18,650 유성현 32,880 유승열 25,200 윤민서 22,950 윤상은 30,960 윤선재 22,290 윤성희 1,050 윤이나 22,670 윤정희 19,430 윤태심 3,350 이경희 29,780 이금숙 20 이명월 1,020 이보리 15,020 이상윤 11,710 이선 자 56,310 이성희 28,310 이수현 4,430 이순금 1,600 이승기 29,210 이영순 500 이예지 26,330 이용철 1,800 이장후 6,270 이재경 15,320 이정건 17,840 이철웅 15,450 이택건 20,500 이향숙 240 일조 28,290 임정복 21,600 임정복 20,900 장성호 27,090 전형수 15,950 정금순 1,400 정문자 24,050 정병윤 25,690 정용호 25,920 정윤한 13,840 정인철 19,740 정채일 40,520 정채일 34,620 정희영 28,810 조정숙 17,620 조정휘 26,310 주은미,주초이 10,260 진명숙 15,330 진여심 7,060 차상호 21,730 천수경 100,000 최금란 1,000 최상호 24,020 표민수 29,080 표민수 86,900 한상현 24,490 한상호 20,210 한영일 4,000 한우촌 12,200 한정수 23,790 한혜자 37,830 함승태 2,710 함희성 8,840 해공덕 24,320 허정숙 1,400 홍건화 15,980 화엄사 61,670 황현경 25,890 LG서초유원 27,630

울산

고헌사 47,920 김경희 26,560 김나원 13,470 김병현 18,310 김영운 11,220 무명24,110 무명 50,820 보밀권 33,640 삼성한의원 63,630 신승희 174,750 안수용 27,900 이경선 18,270 이수현 22,300 정승은 51,070 조정덕 23,930

제주

김영민 16,210 김인선 11,710

청주

김응례 3,000 윤동근 10,310 최인옥 50,080 황경주, 황윤주 24,200

해운대

강윤아 13,250 고현진 80,910 공현아 1,190 곽태원 5,220 구동현 9,270 권현정 2,150 김귀현 3,040 김동명 17,230 김성일 20,800 김연자 25,520 김영훈 760 김옥이 20,650 김정선 35,150 김정희 17,220 김현주 6,870 김형길 11,930 무명 27,360 무명 8,200 무명 38,500 무명 6,710 무명 18,550 무명 20,650 무명 5,140 무명 4,690 무명 28,750 무명 1,700 무명 380 무명 5,410 무명 4,480 무명 760 무명 4,390 무명 13,250 무명 22,320 문수은 2,330 박수진 5,640 박재성 28,340 박재영 25,330 배인환 7,780 부산기계공고 8,710 심난이 5,200 옥명자 21,580 우경자 19,730 이경열 26,900 이경훈 18,840 이광성 27,560 이문숙 27,860 이상민 18,870 이수진 19,780 이영석 18,450 이인옥 15,010 이충희,이정대 4,660 이태길 3,260 장산부동산 10,160 차태순 18,940 채석호 4,810 채화석 21,100 최은아 13,530 최은하 18,660 허지민 1,960 홍현기 2,700 황서연 4,760

LA

LA정토회 1,066,026($1,027)

북한어린이를 위해 통일돼지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거리모금 현황

광주 308,110 대구 3,422,660 대전 864,040 동래 1,116,230 마산 2,752,600
서울 5,532,511 울산 624,980 청주 567,160 해운대 1,192,080